

# KIA 김도영 “지난 영광 잊었다...올 시즌 풀타임 뛰겠다”

### 지난달 모교 동성고서 ‘초심’ 다지며 훈련 매진...준비 순조 “몸 상태 지난 시즌보다 더 좋다...기술적인 부분 보완 주력”

모교에서 초심을 다진 ‘MVP’ 김도영이 역사를 이어간다.

KIA 타이거즈 김도영은 지난 시즌과는 다른 출발선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김도영은 기록 행진을 펼치면서 KBO리그 ‘슈퍼스타’가 됐고 MVP에도 등극했다. 김도영의 활약으로 팀은 정규시즌 1위에 이어 한국시리즈 우승컵까지 차지하면서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 시즌 우승 공로를 인정 받은 김도영은 올 시즌 연봉이 1억에서 5억으로 400% 수치 상승했다. 이와 함께 KBO리그 4년 차 역대 연봉 최고액과 구단 최다 인상을 기록도 갈아치웠다.

김도영은 달라진 입지 속에 프로에서의 4번째 무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마음은 같다.

김도영은 앞선 시즌과 마찬가지로 지난겨울 모교 동성고를 찾아 워밍업을 했다. 동성중-동성고 출신인 김도영에게 이곳은 가장 훈련하기에 익숙한 장소다.

후배들과 함께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된다. 자신의 아마추어 시절을 생각하면서 초심을 다지고,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타자’ 김도영을 가장 잘 아는 은사인 강명구 동성중 코치가 있다는 점도 모교로 향하게 하는 이유다.

지난해 초반 부진에 빠졌을 때도 김도영은 강 코치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코치님이 자세를 잘 잡아주신다. 내 모든 타격을 지켜보고 계신 것 같다”며 은사에 대한 고마움을 표한 김도영은 이번 겨울에도 틈나는 대로 강 코치와

호흡을 맞추면서 기본을 다졌다.

강 코치는 “중학교 때까지 지금까지 도영이 스윙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아닐 것이다(웃음). 중학교 때도 타율 1위 하고 남다르기는 했지만 이런 느낌은 아니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확 올라온 것 같다”며 “노력을 많이 했다. 훈련하다가 요령을 피울 만도 했는데 정말 성실하게 했다. 한번 티배팅을 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만 치라고 말을 안 했더니 나중에 팀 훈련이 끝난 뒤에도 계속 치고 있었다”고 회상했다.

김도영은 이번 겨울 손가락 부상 여파로 걸음이 더뎠던 지난해와 다른 시간을 보냈다.

김도영은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준비가 순조로웠던 것 같다. 작년에는 손가락을 다치니까 하체 훈련밖에 못 했는데 올해는 몸관리도 잘 되고 몸상태도 좋아서 훈련이 잘됐다”며 “몸상태를 똑같이 시즌 전 상태로 만들고, 한 시즌 풀타임 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을 과제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기술적으로 아쉬웠던 부분 보완하려고 했다. 투스트라이크에서 쫓기고 그런 게 있었다. 시즌 치르면서 폼이 미세하게 바뀐 것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매년 모교를 오가면서 겨울을 보냈지만 올 시즌 김도영은 달라진 마음과 인기를 실감했다.

김도영은 “올해 훈련하면서 다른 게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여유가 생기니까 넓게 봐져서, 후배들 하는 것에도 눈이 갔다. 지난해에는 나하기 바빠서 내 것만 했었다”며 “후배들도 보고 있으니까 훈련할 때만큼은 진지하게, 진중한 자세로 임했다. 출신수



‘MVP’ KIA 김도영(왼쪽)이 또 다른 시즌을 위해 모교에서 초심을 잡았다. 지난 1월 은사인 강명구 동성중 타격 코치와 타격 훈련을 하는 모습.

범하면서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에도 출연했는데 많은 분이 보셨다. 야구를 모르는 데 방송에서 봤다고 인사를 하신 분도 있었다”고 웃었다.

달라진 인기와 위상을 실감하고 있지만 김도영은 ‘초심’을 말한다.

김도영은 “한 번씩 작년 하이라이트 보기는 했다. 작년 기억을 떠올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야구가 하고 싶어서 보게 됐다. 작년 기억은 이미

지웠다. 한 해를 풀로 뛸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며 “요즘 독감에 걸리면 힘들다고 하는데 독감 조심하고, 을사년 행복하게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다”고 팬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5일 서울시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2024-25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ACL) 참가 K리그 4개팀 미디어데이에서 각 구단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울산 HD 김영권, 포항 스틸러스 전민광, 광주FC 이민기, 전북현대 박진섭. /연합뉴스

## 광주FC 이민기 “구단 위해 더 많은 상금 타겠다”

### ACL 참가 K리그 4개팀 미디어데이

프로축구 K리그1 울산 HD·포항 스틸러스·광주 FC·전북 현대 선수들은 클럽 월드컵 출전, 명가 재건, 상금 획득 등 각자의 소망을 품고 새 시즌을 고대한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에 출전한 네 팀의 대표 선수들은 5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각 구단 사정에 맞게 서로 다른 새 시즌 소망을 밝혔다.

K리그1 3연패를 이룬 디펜딩 챔피언 울산의 베테랑 센터백 김영권은 시즌 중반 예정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이 가장 기대되는 행사다.

울산은 6월 14일부터 한 달간 미국에서 열리는 FIFA 클럽 월드컵에 K리그 대표로 출전한다.

김영권은 “클럽 월드컵 16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며 “최고의 팀들과 경기를 선수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다. 설렌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리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회 출전으로 울산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

2024시즌 K리그1, ACL에 코리아컵까지 뺄뻑한 일정으로 총 55경기를 치른 울산은 올 시즌엔 클럽 월드컵이 추가됐다.

12억원 보장에 우승 뎀 ‘+174억’

“본선행 이상의 더 높은 곳 목표”

울산 김영권

“FIFA 클럽 월드컵 16강 목표”

전북 박진섭

“당연히 리그·ACL2 우승할 것”

포항 전민광 “리그 정상에 설 것”

김영권은 “4개 대회를 준비하는 상황인데, 내용과 결과를 다 잡기 위해 전지훈련부터 잘 준비해왔다. 보여드리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강등의 문턱까지 몰렸던 전북 현대의 박진섭에게는 올 시즌은 명예 회복의 장이다.

거스 포엣 감독의 지휘 아래 명가 재건을 다짐한 박진섭은 “선수들이 ‘제로베이스’부터 시작하고 있다. 감독님께서 정해진 베스트11이 없다고 하셔서 경쟁을 통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님께서는 ‘붉은 물’이라는 게 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경기장에 나가지 못한다고 하

셨다”며 “우리 팀의 목표는 당연히 리그와 ACL2의 우승”이라고 강조했다.

광주FC의 이민기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쳤던 구단 사정을 고려해 ‘상금 획득’이라는 목표를 내걸었다.

광주는 ACL 엘리트에서 K리그 팀 가운데 현재 가장 좋은 성적(4승 1무 1패)을 거둔 상태다. 이 대회는 출전하는 모든 팀에 80만 달러(약 12억원)를 보장한다. 우승팀은 여기에 추가로 1200만 달러(약 174억원)를 받는다. 준우승팀에는 600만 달러(약 87억원)가 돌아간다.

이민기는 “저희 광주가 ACL 엘리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다. 본선 진출 가능성도 높은데, 목표는 더 높은 곳”이라며 “광주 구단에 더 많은 상금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리그1 우승도 함께 목표로 내건 이민기는 “내가 광주에 있으면서 ACL에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현실적인 꿈을 꾸기보다는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새 시즌 팀에서 가장 기대되는 선수로 스스로를 뽑으며 자신감을 드러낸 포항 스틸러스의 전민광은 “작년에 코리아컵 우승 트로피를 든 이후 선수들이 계속 자신감에 차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민광은 “리그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표다. 팬들은 포항이 정상에 올라오기를 12년 정도 기다리고 계신다”고 새 시즌 포부를 밝혔다. /연합뉴스

## ‘통산 65승’ 신지애 ‘1승 더해볼까’

### 호주 프로골프 빅 오픈 6일 개막

프로 통산 65승을 거둔 신지애(36·사진)가 호주여자프로골프(WPGA) 투어 빅(VIC) 오픈(총상금 20만 호주달러)에 출전한다.

빅 오픈은 6일부터 나흘간 호주 빅토리아주 바윈헤즈의 서턴 비치 골프 링크스에서 열린다.

이 대회에서는 호주 남녀 투어 대회가 동시에 개최되며 1, 2라운드는 비치 코스(파72·6203야드)와 크리크 코스(파73·6181야드)에서 번갈아 치른 뒤 3, 4라운드를 비치 코스에서만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호주여자오픈에서도 우승한 신지애는 호주 aap통신의 인터뷰에서 “그 우승으로 시즌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축하도 많이 받았다”며 “어느 정도 쉬고 왔으니 또 다른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애는 통산 65승 가운데 5승을 호주에서 따냈다.

2013년 호주여자오픈을 시작으로 2016년 호주 레이디스 마스터스, 2018년 캔버라 클래식,



2023년 빅오픈, 지난해 호주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다.

신지애는 이 인터뷰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생활을 마치고 지금은 일본에서 뛰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미국 투어 생활이 즐거웠지만 이동 거리가 너무 길고, 일정도 빡빡했다”며 “시절이나 좋은 대회가 많아 모든 선수의 꿈이지만 저는 삶의 균형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신지애도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김주형, 세계1위 셰플러와 동반 플레이

### PGA 피닉스오픈 7일 개막

김주형(사진)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WM 피닉스오픈(총상금 920만달러) 1, 2라운드에서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동반 플레이를 하게 됐다.

PGA 투어가 5일 발표한 올해 WM 피닉스오픈 1, 2라운드 티타임을 보면 김주형은 한국 시간으로 7일 오전 4시 44분에 셰플러, 맥스 호마(미국)와 함께 1번 홀에서 경기를 시작한다.

2라운드는 8일 0시 4분 10분 홀에서 첫 티샷을 한다. 이번 대회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TPC 스크츠데일(파71·7261야드)에서 열린다.

셰플러는 2022년과 2023년 피닉스 오픈에서 우승했고 지난해에도 공동 3위에 오르는 등 이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다.

또 PGA 투어 통산 6승의 호마는 대회 장소인 애리조나주 스크츠데일에 살고 있어 지역민들로 부터 인기가 많다.



김주형이 이들과 함께 이른바 ‘흥행 조’로 편성된 것은 최근 김주형의 PGA 투어 내 위상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김주형은 특히 평소 셰플러와 가까운 사이로도 알려져 있다.

임성재는 제프 슈트리카(오스트리아), 샘 번스(미국)와 함께 1, 2라운드를 치르고, 2021년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이경훈은 케빈 키스너(미국), 데이비드 스킨스(잉글랜드)와 1, 2라운드 같은 그룹이 됐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2천만뷰 돌파

